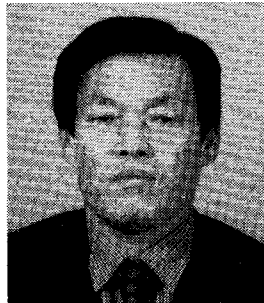


**정책입안자는
수시로 문제의식을 갖고 축산현장을
체험하고 보다나은 축정을
입안해야 하며구태의연한
축산물 수입정책에서
겉질을 깨고 나오는 독창성을
발휘할때 축산업은 발전**

비교우위를 유감



하 철 규
마석 동진가축약품 대표

산업의 발전은 정책에 달려 있다. 축산업이 깊은 골없이 꾸준히 발전하려면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지 않고 산업을 건강하게 이끌어야 한다.

정책입안자는 수시로 문제의식을 갖고 축산현장을 체험하고 보다나은 축정을 입안해야 하며 구태의연한 축산물 수입정책에서 겉질을 깨고 나오는 독창성을 발휘할때 축산업은 발전하게 된다.

비교우위의 진수는 우리의 타고난 축산환경이 불리하니 인내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면 드디어 전부 다 이를 것을 괜히 서두르며 안달하다가 축산물 수입개방이나 하는 정책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어떤 산업이든지 환경상의 장·단점을 가려 장점을 곱게 가다듬는 것이 그 산업의 행복한 운명을 개척하거나 산업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축산업이 수입축산물의 홍수안에서 표류할 수 만은 없다.

축산인의 미래는 확대되어야 한다. 어제의 수입축산물이 가르쳐 준 뼈아픈 교훈으로 오늘의 축정입안가들은 축산안정을 다질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 한국적인 축정은 축산인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주지만 비교우위론으로 포장한 축정은 축산인을 압도하려 한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또 열정이 없다면 어떤 가치있는 것도 이루기 어렵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불타는 열정으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비교우위론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한다. 물론 축산인들은 모든 문제가 축산인의 뜻대로 즉시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축산인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환경이야 타고난 것이고 우리의 짧은 생애를 몽땅 다 바쳐도 쉽게 고칠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교우위론자의 단견은 아닐런지, 하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축산인은 물론 축산업까지도 그리고 후대 축산인들까지 불행한 운명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자성할 일이다.

노력없는 행운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생활 철학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설 불리 비교우위론을 내세우지 않을터인데 딱하기만 하다.

옛부터 착각은 자유라고 했고 착각에 세금불는 건 아니지만 축정에 있어서 비교우위론만은

착각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이다. 적어도 축산업에서 만큼은 안일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든지 비교우위론이나 앞세우는 경제이론가가 이룰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사에 있어서 발전의 원동력은 조금 열등한 환경을 타고 낳고 하여 미리 포기하여 버리는 자포자기 정신에 있는 것이 아

환경이야 타고난 것이고 우리의 짧은 생애를 몽땅 다 바쳐도 쉽게 고칠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교우위론자의 단견은 아닐런지, 하지만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축산인은 물론 축산업까지도 그리고 후대 축산인들까지 불행한 운명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자성할 일

니라 아무리 유복한 환경이나 치밀한 계획도 성실한 실천이 미흡하면 아무 것도 이룰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품수출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수입이 불가피하다는 명분론을 내세우기에 앞서 축산인의 아픔을 얼마나 자기의 아픔으로 안고 있으며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자문해야 한다. 축산업안정은 축산물수입정책으로는 결코 이뤄질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여 주기 바란다.

비교우위론이 지니는 추상성과 축산인이 생각하는 구상성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마디로 사고의 차이이다.

거대한 축산업을 추상적으로 본다면 비합리적이라는 개념이 보다 확실하여질 것이다.

축정을 입안하는 자들에게 소박한 바램이 있다. 그것은 직접 몸으로 부딪치고 체험하면서 축정을 세워 달라는 것이다.

옆에서 구경꾼으로서, 방관자로서 세우는 축정이 바로 비교우위론이 아니고 뉘란 말인가, 우리의 축산이 타고난 환경을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갈고 닦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조해야 할 것이다.